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언문

대한전선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표이사 나형균입니다.

먼저, 지난 한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위기 속에서도 회사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임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신년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은 우리 회사의 향후 10년을 위해 전사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기이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포식을 통해 이러한 도약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공정한 거래에 대해 전 임직원과 함께 다짐하고자 합니다.

우리 회사는 업계의 관행 같았던 입찰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근절하고,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 대응하고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2021년 8월 도입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회사의 자율준수 실천의지를 적극 알리고자 임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당부의 자리를 가져왔고, 협력업체를 직접 찾아가서 안내를 하는 등 회사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직급별 교육을 수차례 진행하여 공정거래 법령 준수의 필요성을 전파하였으며, 사내 정기교육 및 법령 관련 퀴즈대회를 통해 임직원이 다양한 방식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인 한해였습니다.

2023년에는 코로나19가 많이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작년의 운영성과를 발판 삼아 회사의 공정거래 의지를 다양한 채널로 알리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임직원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았던 외부전문가 초빙교육은 직급별, 부서별로 필요한 주제를 선정하여 법령위반의 사전예방이라는 취지에 맞게 준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회사는 지속적으로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임직원에게는 포상을, 이에 반하는 경우 엄중한 제재를 부과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확고한 공정거래 문화를 정착해 나간다면 우리 회사가 바라보는 10년 후의 모습이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대한전선이 전선업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모범이 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 여러분께서 공정한 경쟁 질서와 투명한 거래 문화 선도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023. 1. 11.

대한전선 대표이사 나 형 균